



계획이 다 있는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상에서 각본상,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 작품상 등 무려 4개 부문을 휩쓸었다. 그중 기택(송강호)네 반지하 집과 그가 사는 동네 전체를 정교하게 만들어 촬영이 진행했던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가 영화촬영의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정리 전략산업과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x 기생충

영화 기생충은 전원 백수 가족이었던 기택(송강호)집안의 장남 기우(최우식)가 고액 과외 면접을 위해 박사장(이선균) 집에 발을 들이면서 시작된 두 가족의 만남이 견잡을 수 없는 사건으로 번져가는 가족 희비극이다.

지난 2018년,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와 영화 기생충의 제작사는 봉준호 감독과 최우식, 박소담 배우가 참여한 가운데 촬영·홍보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생충을 촬영했다.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에서는 기생충에 등장하는 기택네 반지하 집과 그가 사는 동네 전체가 정교하게 만들어져 촬영이 진행되었다. 칸국제영화제 당시 사회 양극화를 시각화한 기생충의 반지하 세트 등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기도 했다.

복합형 실내스튜디오를 갖춘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스튜디오는 덕양구 통일로396번길 250에 위치해 있다. 건축면적 868평, 대지면적 7,836평 규모다. 방치되어 있던 폐정수장을 리모델링해 특수촬영이 가능한 수조형 스튜디오로 탈바꿈시켜 기생충, 신과함께, 명량, 부산행 등 약 131편의 수면·수중촬영이 진행됐다. 또한 연 평균 20여 편의 영화, 드라마, 예능이 제작되고 있다. 야외스튜디오만 갖고 있던 기존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는 작년 10월 말 실내수조와 실내스튜디오를 구비한 복합형 실내특수

촬영장으로 업그레이드돼 겨울에도 수중촬영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시설 운영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세계적인 작품이 계속해서 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에서는 작년 말 영화 타워를 연출한 김지훈 감독의 싱크홀(가제) 촬영을 진행한 바 있다. 배우 김성균, 이광수 등이 출연하며 다가오는 2020년 여름경 개봉 예정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촬영일정을 협의 중이다. 🎬



영화 '명량' 촬영 장면



영화 '해무' 촬영 장면



영화 '신과함께' 촬영 장면